

Vol.53 2010.10

KIER

Friday energy letter

**아파트에도 에너지 다이어트 시대 개막
- 우리 아파트도 ESCO로 관리비 낮춘다**

Friday Energy Letter

아파트에도 에너지 다이어트 시대 개막 - 우리 아파트도 ESCO로 관리비 낮춘다 -

2010. 10. 22

* 출처 : 지식경제부(10/21)

▶ 에너지관리공단·SH공사, 아파트 ESCO 시범사업 '사랑방 협약식'

- 내년 서울 임대아파트 3,809세대 난방효율향상, LED, 대기전력차단장치 도입

▶ 최경환 장관 주재 'ESCO 산업 활성화 방안' 업계 간담회 개최

- 2015년까지 시장규모 1조, 고용 1.7만명 창출, 신성장동력으로 육성

-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노후 아파트의 노후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의 LED 교체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보급 등을 지원하는 '아파트 ESCO 시범사업'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
※ ESCO (Energy Service COmpany,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) :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선하고,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

- 지식경제부는 내년도에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 7개 단지 3,809세대를 대상으로 '아파트 ESCO 시범사업'을 추진하고, 이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준공 10년이 지난 공공임대아파트 88만 세대를 대상으로 ESCO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.

- 이번에 첫 수혜를 받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은 연간 에너지비용을 29% 절약할 수 있어, 세대당 평균 45.5만원에서 32.3만원으로 13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된다.

- 이와 함께 노후된 시설로 난방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세대에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게 되어 서민 복지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.

-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월 20일 서울시 상도동 소재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를 방문, 주민들에게 직접 '아파트 ESCO 시범사업'에 대해 설명하고 '사랑방 협약식'에 참석했다.

- 노후된 공공 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'사랑방 협약식'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SH공사 및 공공임대아파트 대표는 ESCO 제도 개선과 사업비 보조 및 용자를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,

- 이를 바탕으로 전국 아파트에 ESCO 사업이 확산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.

□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 ESCO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아파트 전용 ESCO 브랜드인 "SAVE(Save Energy via ESCO)"를 도입, 전국 아파트로 확산시킬 방침이다.

- SAVE는 그간의 아파트 ESCO 사업이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전부를 ESCO에 납부하던 관행을 개선하여,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50%로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를 인하하도록 하고 나머지 50%는 ESCO에 납부하는 제도이다.

- 또한, 각종 이권사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 입주자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발주 관행을 개선하여 아파트 ESCO 사업 발주시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*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,

* ESCO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만 적용

- 사업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투명한 발주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「아파트 ESCO 지원협의회」*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.

* 산·관·학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에 ESCO 사업발주를 일임

- 준공 후 10년이 지난 전국 아파트의 50%인 228만 세대로 SAVE가 확산될 경우, 이로 인해 신규 창출되는 ESCO 시장은 총 2조 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.

□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“노후시설 교체 비용은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의 보조금, ESCO 용자금 등으로 충당하되 절약되는 에너지비용의 일부로 ESCO 용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.”며,

- “건물 에너지소비의 56%를 차지하는 가정의 ESCO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업 모델을 발굴,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<< “ESCO 산업 활성화 방안” 간담회 >>

□ 한편,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절약의 산업화를 통해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국가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 고용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ESCO 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주재하고 ‘ESCO 산업 활성화 방안’을 발표했다.

- 최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시장의 1.2% 규모에 불과하고, 70%가 정책자금인 국내 ESCO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롯,
 - ▲ 공공기관 ESCO 의무화, 아파트 ESCO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 창출, ▲ ESCO 공제조합,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한 투자 확대, ▲ ESCO의 전문화·대형화, 성과보증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, ▲ 글로벌 협력 ▲산업기반 강화 등 5가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.
- 이를 통해, 정부는 “2015년까지 시장규모 1조원 ('09년 0.2조), 고용창출 1.7만명, 연간 에너지절감량 55만TOE ('09년 12만)’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.
- ※ TOE (Tons of Oil Equivalent, 석유환산톤) : 1톤의 석유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, 1TOE는 약 55만원의 비용으로 환산 (55만 TOE = 3,025억원)

<< “ESCO 산업 활성화 방안” 주요내용 >>

-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효과 5% 이상, 투자회수기간 10년 이하일 경우 ESCO 사업 추진이 의무화된다.
 - 내년부터 1만㎡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모든 공공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고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.
 - 또 중소 ESCO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ESCO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올해 1,350억원에 불과한 ESCO 지원 자금을 내년에는 6천억원(ESCO펀드 포함)으로 4배 이상 확대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시장을 늘려나갈 방침이다.
 -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올해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해오던 ESCO 정책자금을 내년부터는 평가체제를 도입, 전문성 있는 기업, 효과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ESCO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.
-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“ESCO 사업은 1억원 투자시 매년 3천8백만원(92TOE)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어 설비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가정할 경우 투자대비 3.8배의 효과가 있다”며,
 - “그간의 에너지절약은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했다면, ESCO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이 아닌 경제적인 혜택을 주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.”고 말했다.

